

2014 청소년활동포럼

세월호 이후 청소년활동의 관점과 사회적 환경에 따른 실질적 안전의 모색

일 시: 2014년 8월13일(수) 10시 ~ 18시

장 소: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주최 및 주관:

후 원:

한국시민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활동학회·충북아동청소년포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청소년활동진흥네트워크
청소년참여네트워크

청소년활동포럼

**세월호 이후 청소년활동의 관점과
사회적 환경에 따른 실질적 안전의 모색**

한국시민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활동학회·충북아동청소년포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청소년활동진흥네트워크
청소년참여네트워크

포럼 제안 배경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났습니다. 청소년의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수학여행과 체험활동 등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이 되어 활동의 위험수준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안전의식지수를 개발한다고 하고, 조달청에서는 수학여행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하던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결과를 교육부에 공유하여 각 급 학교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여러 일들이 만들어 지고는 있지만 청소년활동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청소년활동은 국가 정책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관련기관시설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입니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학교, 상담실, 민간시민사회단체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 관련기관이 청소년활동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계라고 일컫는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의 청소년활동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의미가 존재합니다. 정책적 산물로서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활동의 가치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청소년들의 실질적 안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학회와 현장의 청소년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연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의 근본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서 실질적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여 핵심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을 기초로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이 근본적 가치에 맞는지 확인하며 청소년들의 실제적 안전 담보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다운 활동, 안전한 안전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교 회장 (한국시민청소년학회) · **권일남** 회장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황미영 공동대표 (충북아동청소년포럼) · **김민** 관장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네트워크 · 청소년참여네트워크

진행일정

- 등록: 9시30분 ~ 10시

- 제1부 개회 및 인사말 (10시~10시 15분)
 - 사회: 고희복 관장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인사말: 이용교(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 권일남(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장), 황미영 (충북아동청소년포럼 공동대표) 등

- 제2부 청소년인권·문화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10시20분~12시20분)
 - 사회: 전성민 원장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주제 1. 세월호 사건을 통해본 안전과 인권
 - 발표: 미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준엄안전위원회 활동가)
 - 주제 2. 청소년지역문화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발표: 이승훈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장)
 - 주제 3. 청소년참여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발표: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제3부 청소년복지·상담·역량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1시30분~3시10분)
 - 사회: 조남익 (광운대 교수)

- 주제 4 청소년역량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발표: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주제 5 청소년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발표: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6 청소년상담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발표: 황미영 (전)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
- 주제 7 트라우마(PTSD)이해와 관리를 통한 청소년활동과 안전
 - 발표: 임재호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

○ 제4부 학교교육 및 법제도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3시30분~4시40분)

사회: 김영인 교수 (방송대 청소년교육학과 교수)

- 주제 8. 학부모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안전 제안
 - 발표: 이후식 (태안해병대 캠프사고 유가족 대표)
- 주제 9. 학교사회사업(교육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발표: 전구훈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현) 사회복지연구소마실 부소장)
- 주제 10. 청소년활동진흥과 안전, 둘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의 모색:
 - 법 제도적 관점과 시설의 차원에서
 - 발표: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제5부 전체 토론 및 제안 (4시40분~6시)

- 핵심사항 설명: 서기 (오매, 정지윤 선생님)
- 플로어 제안 및 토론

글 실는 순서

1. 청소년인권·문화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1. 세월호 사건을 통해본 안전과 인권 (미류) ----- 9
- 주제 2. 청소년지역문화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이승훈) --- 10
- 주제 3. 청소년참여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정건희) ----- 18

2. 청소년복지·상담·역량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4 청소년역량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권일남) ----- 34
- 주제 5 청소년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이용교) ----- 49
- 주제 6 청소년상담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황미영) ----- 55
- 주제 7 트라우마(PTSD)이해와 관리를 통한 청소년활동과 안전 (임재호) -- 64

3. 학교교육 및 법제도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8. 학부모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안전 제안 (이후식) ----- 85
- 주제 9. 학교사회사업(교육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전구훈) -- 95
- 주제 10. 청소년활동진흥과 안전, 둘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의 모색:
법 제도적 관점과 시설의 차원에서 (김민) ----- 104

-
-
- 주제 1. 세월호 사건을 통해본 안전과 인권
 - 주제 2. 청소년지역문화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3. 청소년참여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주제 1. 청소년인권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세월호 사건을 통해 본 안전과 인권

미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활동가)

주제 2. 청소년지역문화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세월호 참사 이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마을과 청소년 활동 그리고 안전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어나고 묻는다면... 감히, 다음 네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청소년 활동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시설이 수익활동이 아닌 본래의 목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립형 청소년수련시설¹⁾ 모형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또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이자 목표라고 말하는 기업, 시장과 자본에게 청소년 활동의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²⁾ 둘째, 청소년 활동에 있어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의 확대³⁾에 있다. 통제와 통솔에 익숙한 청소년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으로 자기 삶의 주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는 실질적 경험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시설은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기보다 마을 공동체의 교육력을 키우는

- 1)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익을 내어서 운영비를 감당하도록 하는 재정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도서관, 복지관 등 여타의 다른 공공시설과는 매우 예산 구조로 공공성 추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2)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리조트 참사, 세월호 참사는 모두 이윤추구에 매달렸던 기업과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 3)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훈련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졌다면, 경주 리조트에서 대규모 집합 활동 대신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세월호에서 가만이 있으라는 방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일에 힘을 투여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쟁적 교육 환경을 극복하는
느리지만 근본적인 방향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활동을 기획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안전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생태적인 것, 평화적인
것, 작지만 소중한 것, 대안적인 것, 지속가능한 것, 인권적인 것, 공동체적
인 것들에 귀한 가치를 두고, 민감한 감수성으로 활동을 기획해야 하겠다.

1. 경쟁의 신화와 세월호 참사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경쟁의 신화는 그동안 우리 모두를
“게임에 참여하면 잘살게 해 줄 테니 엉뚱한 짓하지 말고 ‘가만있어라’”라
는 거짓 논리로 설득하는 좋은 도구였다. 적자생존, 효율성, “어디서든 어
떻게든 게임의 규칙을 지키고, 잘 적응하라!”, “적게 투자하고 높은 이윤을
내는 것이 능력이다.”,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경쟁에 이겼다면 무엇이든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져도
된다.”, “돈 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 판매해도 된다.” 경쟁!, 경쟁! 이
라는 가치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어느덧 공공영역의 발전을 위한 최
소한의 경쟁이라는 경계는 무너지고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급기야 경쟁은
필요악이 아닌 절대적이고, 선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효율성은 어떤 사
람과 조직이 하는 일을 판단하는 최대의 가치 기준이 되었다. 적자생존, 무
한경쟁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을 발
견하고, 직업정신을 발휘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과 일 속
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신념을 버리게 되었고, 매월 생계비를 받으며,
매뉴얼과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영혼 없는 노동자로 전락해버렸다. 비단 비
정규직 선장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도, 경찰도, 기업도, 교사도, 사회복지사
도, 청소년지도사도, 교육복지사도...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생각
하기를 멈추었다. 마치 왜 달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달리는 초원의 스프링벅
같은 두려움 회피를 위한 생존경쟁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놓고도 방향에 대한 어떠한 고민 없이 그저 그대로 살아 온 데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가만있으라! 배가 가라앉고, 생명을 위협해도 가만있으라... 어른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2.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못한 것

청소년 활동은 보다 안전해져야 한다. 당위적이고, 좋은 말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보다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가?, 정부는 안전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고민하고는 있는가? 연이어 발생한 끔찍한 사고들 이후 제시된 안전 대책은 위험하니 청소년활동을 하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것뿐이다. 점점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는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 제도는 활동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효과는 청소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수학여행 갈 때마다 배치시키고, 보호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와 학원을 더 많이 만들고, 오랜 시간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청소년들을 돕는 전문적 지원기관을 더 많이 만들고, CCTV를 설치하고,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꼭 경험해야 할 일이지만 혹시나 위험 할 수 있으니 대신해주는 전문적 서비스를 확산하고, 청소년들의 여행을 모두 신고하게 한다면 과연 안전해질까?

진정 안전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보호와 통제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보호와 통제, 신고와 감시가 없었기에 끔찍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가? 청소년에게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학교 수업시간에도, 수학여행과 소풍, 동아리 활동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서 진행된 청소년 활동 수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어찌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통제는 간편하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한꺼번에 많은 수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흡사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통제는 정말 안전한 것인가? 우리는 2013년 해병대캠프 사고, 2014년 경주 리조트 참사, 세월호 참사에서 알 수 있었다. 연이은 참사는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일어났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 보다 중요한 가치를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은 국민(아니 인류) 전체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돈벌이에 대한 집착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이상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안전보다 수익(돈)이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 앞선 세 참사 모두 영리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비용을 줄이고 수익 창출을 위해 건물과 선박을 불법 개조하고, 인력투입을 최소화하고, 무자격자를 지도자로 동원하는 등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동안 청소년계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돈벌이를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영리 단체의 활동을 제제하고,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의 공공성 확대를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로 기업의 영리활동은 제제를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청소년 활동 신고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공공 청소년시설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 안에 있는 많은 수의 청소년시설들의 공공성도 흔들리고 있다. 그 것은 유스호스텔과 대규모 체육시설을 겸비한 복합형 수련시설 등이 전국에 세워지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은 대부분 자립형 수익구조로 운영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자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마

련하기 위해 수익을 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는 무리한 수익성 활동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정부의 창의체험인성교육, 이번 정부의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 자유학기제 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시설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은 막중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 그리고 공공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3. 돈보다 사람이 존중 되는 작은 마을 단위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필요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활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그렇다고 전통사회가 모두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라는 말을 따로 쓸 필요조차 없이 서로 존재하기 위해 필연적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지역사회 복지력, 지역사회 교육력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세상은 급변했고 지역사회의 복지력, 교육력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전문적 기관이 생겨나고, 전문가들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사람을 돕는 현장에서 조차 효율성과 경쟁력이 근본적 가치 달성의 중요성 보다 강조되고, 공공의 역할을 담보해야 할 기관들에서 조차 내가(우리 기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경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쟁이 한창이다.

앞서말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쟁은 필연적이 되었다고 쉽게들 말 한다. 잠시만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나?, 여전히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이다. 당신은 우리사회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개별 기관의 경쟁력은 강화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사회 시스

템만으로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우리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상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쟁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사고의 틀(즉 패러다임) 결국, 마을의 문화와 공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라야 할 것이다.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가치와 약속 9

The 9 Commandments of The Dream Community Gongneung

꿈마을에서는

01.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가치

02.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03.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04.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05. 공동체 활동에 신나고,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06.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들에도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약속

07. 경쟁을 즐기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08. 일주일에 하루는 컴퓨터, 휴대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09.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와 음식을 나누기 위해 일을 잠시 멈춥니다.

4. 다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 활동

태안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리조트 참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청소년 활동 신고제, 안전교육 강화, 수영교육, 수학여행 안전 관리자 배치 등 미봉책도 아닌 보호와 통제만을 강화하는 의미 없는 정책들만 쏟아져 나왔을 뿐이다.

그리고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전혀 모색하지 않고 있다. 노후화된 원전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새롭게 건설된 원전은 온갖 비리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는 그 전력을 서울로 끌어온다는 명분 아래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고 있고, 작은 마을에 거대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안전한 삶을 처참하게 짓밟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국가는 진정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가 국민 안전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는 안전을 위해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고리원전 폐쇄 같은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결단은 경제적 가치만이 최선이 아닌 조금 불편해도 다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풍요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람답게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를 유발했던 기업 같이 돈벌이로만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설득해야한다. 돈이 된다고 리조트와 선박을 개조해서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강한 규제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4) 2014년 5월 10일 세월호 참사 이후 공릉동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9가지 가치와 약속

진로교육 강화해서 성공하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가치를 교육해서 아까운 목숨이 자살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영역에서 지나치게 확대된 경쟁적 분위기가 교육과 복지 등 사람을 만나고, 돕고, 변화시키는 영역에까지 만연되지 않도록 하고, 약자라도 살만한 세상,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국가의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와 사회도 바뀌어야 하지만, 청소년 활동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청소년 활동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논리로 설계된 승자독식 교육 시스템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를 눌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을 기획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안전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생태적인 것, 평화적인 것, 작지만 소중한 것, 대안적인 것, 지속가능한 것, 인권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들에 귀한 가치를 두고, 민감한 감수성으로 활동을 기획해야 하겠다.

또 청소년들을 잘 준비된 청소년 활동과 만나게 하고, 현재사회와 미래사회의 수많은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활동을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학교,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마을의 조그만 흐름을 바꾸고, 소수의 청소년들과 몇 가지 청소년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세상이 변하겠나?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약하지만 현장에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하는 것이다. 변화는 가장자리에서 부터 온다.

주제3. 청소년참여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참여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의 안전모색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304명의 생명과 함께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고 논란은 증폭되었다. 그리고 110여일이 지났다. 변한 게 없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대개조도 정치권의 약속도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여야가 함께 처리키로 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십자를 매고 순례하고 단식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그 과정에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혹시 억울하지는 않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밝혀진 문제를 철저히 대응해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것이다. 몇몇 정치인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유하도 했고, 단식 농성중인 유가족을 빗대어 '노숙자'라는 표현까지 썼다.

1999년 6월 씨랜드 화재 사건⁵⁾ 이후, 2013년 7월 충남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 참사⁶⁾에서도 바뀐 것 없이 요란한 언론만 있었다. 세월호 이후에도 대안이라는 것이 고작 수학여행과 캠프, 체험활동 등을 금지 또는 연기하고 체험활동 할 때 신고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5)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생 19명,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졌다. 어린이들이 숙박하는 수련원은 컨테이너로 만든 안전사고 제로의 임시건물이었다.

6)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한 사건이다.

청소년활동은 어디에서나 진행된다. 활동들을 진행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다. 국가 자격과정을 연결시켜 보면 청소년지도사라는 전문직이 있으며 청소년활동이라는 정책적인 과정도 실재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복지기관, 민간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상담실 등과 심지어 교회 등 종교시설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며, 활동가운데 안전이란 어디에 담보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정책적 대안이라고 나오는 것이 야외 활동을 할 때 신고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활동은 심폐소생술부터 건물의 안전진단까지 안전에 대한 수 많은 대안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활동의 정체성에 따른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성은 모호하다.

청소년활동의 가치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은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원고는 청소년활동의 관점을 참여관점에 두고 실제 안전을 도모할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논해 보고자 한다.

2. 청소년참여의 관점과 조직들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에 단지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한 형태로서 "의사결정에 진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 논의의 주요 관심은 두 번째 정의에 있게 되지만, 첫 번째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상적 활동에도 참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McNeish & Newman, 2002). 또한 청소년참여를 청소년 자신들의 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도 정의한다.

Hart(1997)의 참여수준에서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

원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참여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 실질적 참여인 것으로 잘 못 이해될 때 명목주의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혼동이 정책과 실제에서 참여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의 개념이 의사결정에의 참여로 정의된 것과 같이, 청소년참여권의 개념도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천정웅, 2009).

참여의 개념적 접근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일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실제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청소년관의 실질적인 적용이 청소년참여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의 목적에 참여가치는 이미 투영되어 있으나 청소년을 활동 참가의 대상으로서 수동적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청소년활동의 참여과정은 청소년인권의 지향하는 가치로서 나타나게 되며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인권 관점에서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권리기반접근(RBA)의 PANEL⁷⁾원칙에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참여는 존엄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책무성과 임파워먼트의 기본가치와도 연결된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 기반의 청소년참여제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그렇지만, 청소년참여활동은 단순히 청소년참여기구의 역할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측면에서 그들이 속한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관리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또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단순히 강사를 수급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차별화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현철 외, 2014). 결국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모든 프로그램

7)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Empowerment, 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

은(예를 들면 진로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문화존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사업전반)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집중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2013년에 일어났던 태안해병대 캠프류의 비인권적이고 매우 불안정한 사업들의 가장 주요한 대처법이기도 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청소년참여조직은 포괄적 개념으로 청소년자치활동조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치(自治)’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스스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조직을 구성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 있기에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자치활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활동을 의미하고 그 종류로는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학생회 활동, 학급회의, 청소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미래유권자연대 등의 청소년자치기구와 중고등학생복지회, 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사이버의회, 청소년 인권 동아리 ‘타래’, 청소년포럼, 젊은 모임 등 다양하며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정건희 외, 2010).

즉,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청소년참여 조직은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자치 조직 모두를 포괄한다.

3. 청소년활동의 참여적 관점

청소년활동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이행과 균형된 성장을 돕기 위한 체험활동으로서 의도적, 비의도적, 조직적, 비조직적 활동을 포함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이교봉, 2007). 한편 생애발달과정의 한 단계인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Benson과 Pittman(2001)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통해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개념 짓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 자체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인으로서의 균형된 성장으로 돕는 체험활동으로 역량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므로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의 과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정건희, 20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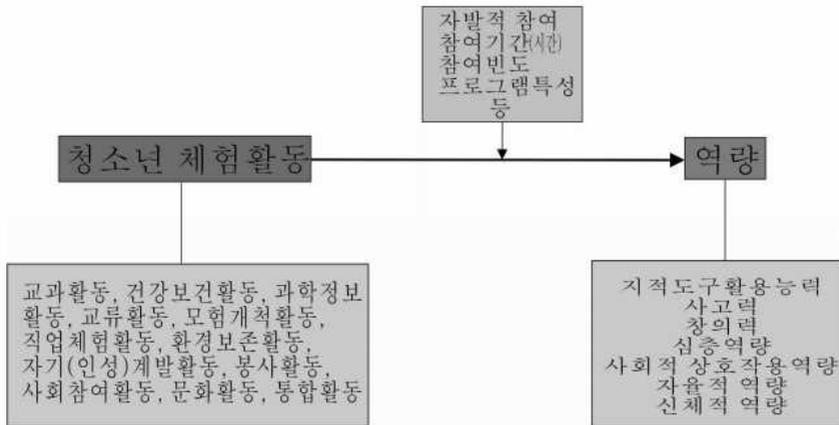
또한 Williamson(2006)은 청소년활동(Youth work)의 주요 목적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시민사회와 개인 핵심소양 개발에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현재 유럽의 노동시장과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량을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형식적 학습은 더 이상 주변적이거나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성과 경제적 능력과 역량 형성의 통합적 기여자여야 한다(이광호, 2012 재인용). 즉 청소년진로 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들은 이러한 청소년활동(youth work)의 개인의 역량개발, 청소년미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인 사업으로서, 자발성을 전제로 청소년의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목적

으로 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정건희, 2014).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는 시설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크게 청소년수련 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과 분류하여 규정한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다. 또한 청소년이용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했다. 즉 이러한 청소년활동시설은 체험활동이 주된 활동으로 이해된다.

최근 창의성과 인성이 강조되면서 그 수단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험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개념이 혼돈스럽고, 측정상 난점도 많기 때문이다(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김현철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학력경쟁체제 속에서는 체험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체험활동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만큼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4배에 달한다는 성은모 등(2012)의 연구는 체험활동이 개인의 발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체험활동은 청소년 역량과의 관계에서, 체험활동의 질과 관련된 외재변수가 매개되어 있다. 즉,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역량 계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 등 질적으로 우수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김현철 외 2013).



<그림1> 청소년활동과 역량과의 관계

출처: 김현철 외(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즉 청소년활동은 국가정책적 개념의 접근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청소년활동의 폭을 넓히면 청소년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4. 청소년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안전의 방향 제안

사고(事故, 영어: accident)는 뜻밖에도 불행한 사건을 의미한다.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설계 오류, 결함, 재료 결함, 환경 조건 등이 있다(위키백과 사전). 사고란 정상적인 활동과정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크게 물적 요인, 인적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3요소에 의해 발생한다(김식현, 1987; 연구철 2014 재인용). 인적원인은 개인의 선척적 후천적 소질요인과 부주의한 행동에서 오는 행동요인, 피로에서 오는 요인이며 물적요인은 불안정한 안전도구, 학습자료 및 구조, 결함이 있는 도구나 비품 등이며 환경적 요인은 물리적 요인⁸⁾과 화학적 요인⁹⁾으로 나뉜다.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라 함은 수련시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과 학생이나 지도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련활동 과정에 의한 프로그램 활동, 기타 수련시설 내에서 활동 중에 발생한 청소년 및 지도자의 사망 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고를 말한다(1999. 박연홍).

한편, Heinrich(1987)의 “도미노 이론”을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설명했다. 1) 사고를 낸 사람이 처해 온 환경과 내력, 2) 개인의 심신결함, 3)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 4) 사고, 5) 인명과 재산피해라는 다섯 가지 골패를 일렬로 세워 놓고 어느 한 골패가 쓰러지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고예방 교육은 바로 이런 원리에서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석혜민, 2005).

다양한 사고예방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가 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예지 능력의 미비 및 불안정한 행동에서 발생되므로 1차적으로 교육적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이미 일어난 사고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 분석과 대책수립 등의 기술적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적 대책이 중요하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Marland(1973)는 ‘안전’을 인간이 행동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

8) 학습장의 협소, 학습도구의 배치, 통로의 협소, 채광조명환기시설의 부적절, 불안정한 복장 등

9) 고열, 먼지, 소음, 진동, 가스, 감전 등의 제 위험들.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안전’이라함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위험의 가능성 혹은 사고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태이다(권봉안, 2000).

종합해 보면 사고란 물적, 인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의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고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고안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안전교육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물리적 환경의 통제와 관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물리적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안전을 강조하면서 자칫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통제·관리가 강화되어 청소년활동의 근본 목적을 해칠 우려도 제기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완전한 안전은 담보되기에 우리 사회는 이미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천재지변에서부터 우발적인 여러 사고는 우리가 예상하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 근래 프로야구 구경 갔다가 파울볼에 뇌를 맞아서 중상을 입어 1년 이상을 병원에 있게 된 대학생의 예부터 지나가다가 멘홀에 빠지기도 하며, 달리는 자동차에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날라 온 돌에 맞아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물리적 환경의 최대한의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청소년참여관점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참여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청소년 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이나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처법이기도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비참여적이고 훈육적이며, 때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청소년 참여’의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 ‘안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참여 없는 통제 관리만을 강조하는 안전은 자칫 더 큰 위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참여조직은 동아리활동 등 자치조직 모두를 포괄한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뿐만이 아닌 국제성취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문화존,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 청소년참여기구활동 등 제반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 사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기본원리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김현철 외, 2013)

셋째, 청소년은 가급적 기획 및 평가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주체로서의 인식하는 과정이다. 청소년은 활동의 주체로서 또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로서 청소년이 기획, 운영,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기획에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청소년참여는 안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원리다.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고 대상화하여 관리·통제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넷째 청소년활동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기여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적 관점으로 다섯 개의 C¹⁰⁾를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이전해 가도록 돕는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후 여섯 번째 C인 기여(contribution) 즉, 자기 자신, 가족,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에 기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청소년활동이 프로그램 접근에서 단순히 청소년대상의 서비스역할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contribution)가 일어나도록 그들이 속한 공간에 참여(participation)하는

10) 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연결(connection), 성격(character), 돌봄(caring)

과정에 안전은 모색되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들을 대상화하여 그들의 안전을 성인중심주의적 관점으로 모두를 책임지고 관리통제할 때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즉시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 기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시설의 참여기구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자치조직 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청운위가 시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기관의 인식의 문제로 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청소년참여의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점과 낮은 참여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다(정건희, 2014). 시설에서의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안전에 대해 기성세대가 살피며 사고를 예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평소 청소년시설에서 운영위원회나 자치조직인 동아리회원 청소년들이 시설이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제안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면 당연히 사고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여섯째 자연권의 캠프형 프로그램에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도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미리 사전 계획을 통해 시설과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 태안해병대 캠프에서의 참사는 철저한 관리·통제의 폭력적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권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에 맞추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다. 가능하면 짜여진 프로그램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면 프로그램에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서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연권 시설 입소 이전에 청소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조정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면밀한 청소년

들의 참여 과정에서 프로그램 및 현장의 안전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청소년 안전교육은 실제화 되어야 한다. 캠프장이나 행사장에서 프로그램 전에 짧은 시간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정도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이전에 세밀한 사업 내용을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문제 또한 면밀하게 정리되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나가며

참여는 공간에서 목적을 지향한다. 참여는 공간의 목적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목적지향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권리와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책임이 커질수록 권리의 크기도 비례하기 마련이다.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간의 목적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따질 일이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을 대상화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전한지 불안한지 청소년들이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중심주의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안전을 기성세대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자기 공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과정이라고 보인다. 기성세대의 오만으로 인해 그들의 안전을 모두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관리 통제형 활동에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났다. 자신의 안전과 내 주변 동료들의 안전을 서로들 돌보며 찾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이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참여관점을 통한 안전은 단순히 활동 과정에서만 집중할 일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이전에서부터 참여는 시작되어야 하고, 그 일의 취지와 목적과 과정 가운데 책임까지 청소년들은 고려해야만 한다.

베블린 효과라는 게 있다. 자본가 계급을 포함하여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는 지배계급을 여가(leisure)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유한계급'이라 지칭하는데 이들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여 세상의 변화에 큰 압력을 느끼지 않고, 굳이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보수주의'경향이 강해진다. 한편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며 몹시 가난한 하위 소득계층은 현 제도와 생활양식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를 원하는 '진보주의' 성향을 갖게 될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기존의 방식에 적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에 순응하는 '보수주의' 성향을 띄게 되는 하위 소득계층이 지배적이다.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궁핍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더욱 보수화 되어간다는 것을 설명한 '베블린효과'의 개념이다. 그들의 사회환경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킬 또 하나의 시민그룹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가 여기 베블린 효과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억측일까? 작년에 태안해병대 캠프 이후 세월호 참사가 났다. 그 내용은 모두 청소년활동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내용에 전문직이라고 하는 우리네 삶은 그 안에 집중해서 무엇인가 바꾸려는 노력은 당연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행하는 일은 변한 게 있는가? 우리네 삶이 현재의 제도와 생활양식에 이전과 똑 같이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무언가 변해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이 바닥의 삶이 너무나 힘겨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자기 현장에서 돌아가는 몇 가지 사업을 추수리기에도 버거운 삶이다. 대부분의 시설, 단체, 기관 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운영을 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쉽사리 국가의 제도적 문제를 비판할 수 없는 구조도 한 몫하고 있다. 누군가 그 숨통을 열어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방향이라도 논하도록 자리라도 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포럼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전국 어디에서나 세월호 이후 우리의 위치에서 사회에 변화시켜야 할 그 어떤 문제와 관점들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자리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포럼과 향후 모임들이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내는 작은 단초가 되리라는 믿음이다. 베블린효과를 오버해서 연결시켰지만 결국 우리가 진행하는 활동의 근본적 문제와 안전의 대안을 우리가 찾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 특히 청소년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 실제 현장 전문가라는 활동가들의 주장을 통해 변해간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깊이 살필 일이다. 나부터...

참고문헌

- 권봉안 · 강정호 · 김광성 (1998). **안전교육**. 서울: 금광.
- 김현철 외(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R03
- 박연홍 (1999). **‘99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지도사 워크숍**. 서울: 문화관광부.
- 석혜민 (2005).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규철(2014). **청소년활동과 안전-201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교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
- 이광호 (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 이교봉(2007).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건희 (2014).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진로활동 지원방안 고찰**. 한국시민청소년학회 춘계학술제
- 정건희 · 김윤나 · 최윤지(2010). **청소년자치활동 실태 및 현황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53-83

정건희·김응수 (2014). 서울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실태 및 참여수준 연구. 서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구보고서

천정웅 (2009).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참여권 신장의 과제. NYPI YOUTH
REPOR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10-17.

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안전·보건교육 체계화 및 학교안전관리 지침. 서울: 한
국산업안전공단

Benson, P. L. and Pittman, K.(2001) Moving the youth development
message: Turning a vague idea into a moral imperative, in Benson, P.
and Pittman, K.(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Kluwer Academic Publishing. pp.vii-xii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Unicef. Earth scan Publications Ltd, London.

Marland, S. K., James, A. E., Ralph, B. C. & John, E. R. (1973).
*Fundamentals of Safety
Education(2nd ed.)*, New York: Macmillan Co.

Williamson, H. (2006). *Youth work and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Leicester: National Youth Agency.

-
- . .
-
- 주제 4 청소년역량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5 청소년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6 청소년상담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7 트라우마(PTSD)이해와 관리를 통한 청소년활동과 안전

주제4. 청소년역량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역량중심 활동의 의미 그리고 안전의 기대

권일남 교수 (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1. “청소년활동의 정체성” 재인식 : 청소년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가?

오늘날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여가와 생활의 이완적 관점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기본법 제정당시의 청소년활동을 주로 수련거리와 수련활동의 추진방식과 이를 수반하는 시설과 인적자원의 배치 등에 초점을 두었다. 당시에는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행위가 청소년정책이었고 청소년의 여가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청소년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어 청소년활동을 곧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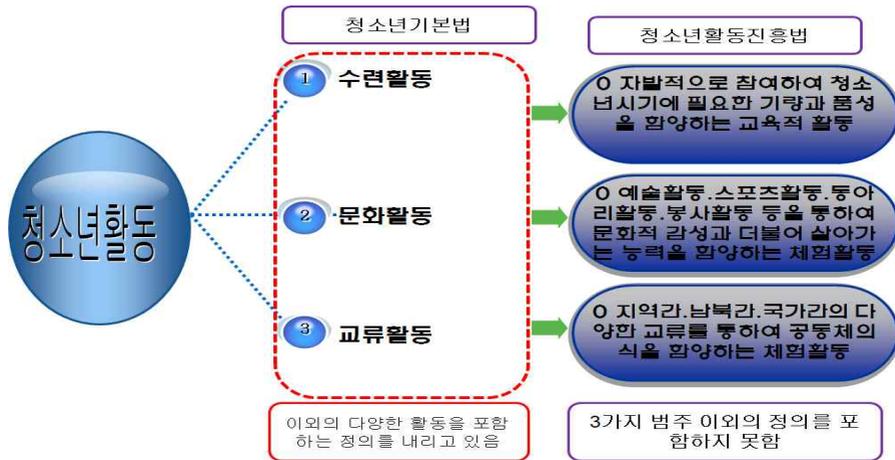
그래서 청소년활동은 곧 지·덕·체의 균형성을 강조하되 전인성장이라는 모토의 실천을 추종하며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업무에 대한 명료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가 각인하고 다짐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사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라는 시기적 특성과도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 인생의 전시기적 관점에서 굳이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미성숙하기에 곧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엿볼 수 있으며 자신의 내재된 능력과 한계를 스스로 실험하고 이끌어내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갈망하는 상징적 관점을 표

방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미숙하다는 점은 곧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채움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적이었던 것은 <그림1>에서와 같이 그간의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미 때문에 스스로의 프레임에 가로 막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림>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활동의 개념적 이해

자료 : 권일남, 김태균, 이창식, 2012.

사람이 특정 사건이나 의미에 대해 심리적으로 프레임에 가로막히게 되면 다른 관점으로 프레임을 수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여기게 된다¹¹⁾. 오늘의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한정된 시각은 우리가 심리적 프레임효과에 가로막

11) 사람은 종종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와 반이나 “남았다”라는 비관론과 긍정론을 말할 때 누구나 긍정론을 선택하는 것이 좀더 나은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속성상 비관론적 결정을 쉽게 내리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벌어진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자신에게 쏟아질 암울한 미래를 대처하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사 이러한 관점이 상시적으로 습관화되면 내재된 능력과 역량을 표출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형성되고 그 약점이 강화된다. 컵의 물을 보면서 관점과 시각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유는 시각의 한계성, 사고의 경직성, 창의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되 실천의 어려움을 당연시하는 인간의 심리적 제한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다른 성향을 보도록 깨우쳐 주어야 한다.

혀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시각과 특성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초기 우리 스스로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장밋빛 환영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각인효과는 바로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청소년시설과 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육성기금 등과 같은 확실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스스로 가두어진 프레임은 온실효과를 형성하여 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정책적 배경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마치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대상의 범주화는 우리 스스로만 해야 하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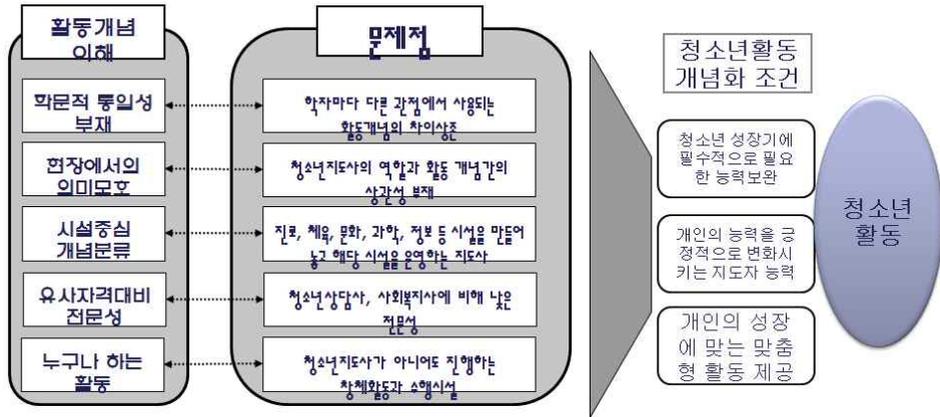
하지만 역설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다양성을 얻게 만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계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곧 청소년정책의 한계적 상황을 스스로 지각하게 만들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청소년정책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조장하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림2> 청소년정책과 환경의 변화

최초 청소년정책에서 근간을 이루어 왔던 시설과 형식중심의 청소년활동은 행위적 근간을 명시적으로 이루기 전에 미래와 오늘이라는 관점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미래와 오늘의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보다는 대상의 변화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된다. 청소년활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와 역할의 존재성에 대한 근원적 투

지를 불사르지 못하고 결국 양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다. 이는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청소년활동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그림3>과 같이 표피적으로 판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스스로 지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그림3> 청소년활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요인

자료 : 권일남.김태균.이창식, 2012.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이라는 대상에게 어떠한 가치와 효과가 있는지를 지각하게 된다면 활동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준거를 다양하고 세밀하게 이해하며 스스로 성장하도록 하는 묘미를 발견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실패를 한 셈이다. 이는 곧 청소년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활동의 전문성을 논의하지 못하고 주변부적 역할만을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2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청소년활동은 정체성을 활발히 추구하지 못한 채 양과 질적인 변화속에서 주도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 청소년활동은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변화와 사회성을 주도하는 기능을 천명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활동의 표현양식과 방법이 매우 다양한 반면 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인간성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적 태도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즉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가치판정의 기준이 명료화되지 못하여 양적이고

만족감을 표방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그저 그런 활동을 누구나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지고 그 결과는 청소년활동의 전문성 효과성을 새롭게 지각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2.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아름다운 결실”

오늘날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가를 문의해 본다면 아마도 대답은 제각각일 것이다. 역량의 개념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든 아님, 분야의 재능과 기술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던 간에 청소년들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잠재적 기능을 발현하여 미래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방하고, 희망한 분야에서 자신감있게 일을 하며, 더 나은 삶과 생애적 가치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량에 대한 개념은 차이가 크지만 “역량이란 개인의 내재된 역량이든 조직의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 또는 조직들 간에 보유한 독특한 역량이든 간에(결과로서) 요구되는 수준과 (현재의)최소한의 수준으로 기대되는 역량 수준의 차이를 개인 또는 조직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한다(윤영배, 2011).

지금도 역량을 보면 직무역량과 일중심 그리고 재능과 능력이라는 편협된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계에서조차도 역량은 아직도 개념화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역량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조차도 거부감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청소년계가 역량의 개념을 받아들이든, 앎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함께 하고 그들의 재능을 발현하며 그들이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되 적어도 바람직한 인간상의 구현을 근거로 깔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여건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역량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전인성장일 수

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량의 의미를 굳이 도입해 보려는 이유도 그 역량이 청소년들의 삶을 기준화하고 스스로 자각하며 왜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표현이든 청소년기의 잠재적 요소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고 공동체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구현해 내는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자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바램 또한 청소년자신의 욕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계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표방하고 이러한 가치를 수반하도록 참여시키도록 하는 동기와 매개적 효능성을 부여하는 기제를 정확히 설명하는데 익숙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청소년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근거가 굳건하지 못하였기에 청소년활동의 시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활동을 매우 저급한 수준으로 바라보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시에 하는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은 대상과 범주만 다를 뿐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관점은 곧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행사형 활동으로 전락하였고 동시에 제도화를 근거로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마련은 매우 소홀하였다.

행사형 보여주기식의 청소년정책은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소년을 바라볼 때 정책의 중요함을 명시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상시적 망각을 보편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마치 청소년정책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¹²⁾을 철저히 준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성과중심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행사를 마치면 아무도 남지 않는 텅빈 객석을 바라보는 청소년정

12) 에빙하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학습 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어 1시간 후에는 50%, 하루 뒤에는 70%, 한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으로부터 기억을 지켜 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이다(신현정, 1995 재인용). 결국 청소년정책입안자, 의사결정자 등의 정책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지각한 후 바로 잊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책의 공허함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 까 생각해 보며 이제는 양보다 질을 고민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시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을 역량이라는 개념과 결합해 보는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적 혁신에서 인재상의 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회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타인과 다른 상질을 얼마나 다른 관점에서 짧고 빠르게 표출시킬 수 있는가가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는 곧 개인의 경쟁력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차원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수월성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름의 특화된 교육방식을 표방해 오는 이유이기도 하다¹³⁾.

어떠한 교육방식이 가장 최선일 수 있는가의 논쟁은 아마도 팽팽한 긴장감을 줄 주제일 것이며 교육과 권력, 정보와 권력의 효과가 더욱 배가되는 이 시기에서 권력의 효용성으로 인해 수월성, 비수월성, 평준화 등의 시각은 계속되는 숙제일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교육방식을 취하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필수적 요소는 그들의 삶에 능동적 기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¹⁴⁾.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지만 타인에 위해를 주는가와 그렇지 않는가는 바로 청소년기에 어떠한 교육과 교육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의 차

13) 우리나라도 수월성교육을 위해 도입하였던 특목고, 자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통해 인재양성의 견해를 달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성패의 갈림길에 교육과 정치적 관점이 연계되면서 본연의 제도도입의 가치를 상실한 채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 경쟁의 소용돌이가 과거보다 더욱 첨예해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 와중에 청소년 개개인도 어떠한 대응력이 필요한지를 요청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4) 최근 우리 사회를 후끈 달구고 있는 임병장, 윤일병 등 군대내 가혹구타사건과 이로 인한 불신,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등을 보면 인간의 행위가 극단적 문제에 기초한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결국 인성의 함양시기에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이끄는 자신의 주도적 역량의 부재로 인해 타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더 이상의 괴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다른 교육적 역량을 의미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지식중심의 역량을 보완하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인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 3의 교육요구로서 청소년활동이나 체험활동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이후부터 경험을 했듯이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의 체험활동기록여부, 비교과활동의 중시,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미래비전을 스스로 검토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은 곧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다른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제각각일 수도 있으며 하나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바램과 기대치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은 양적인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의 가치를 청소년들의 능력발현과 연계하여 설명하는데 익숙하지 못하였다.

청소년활동의 가치가 무엇이며 청소년에게 어떠한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제를 구체화하지 못하다 보니 청소년활동을 역량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알리고 이해당사자에게까지 확대하는데 실패하였던 셈이다.

사실 청소년활동을 다른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 상담 등의 영역에 비한다면 전문화된 가치를 스스로 지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역량을 이끄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제로서 보호, 복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동기를 부여하며 삶의 행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제이자 수단인 셈이다.

결국 청소년활동이 역량으로서의 기능을 수반할 것인가의 판단은 활동을 경험하는 이해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이기도 하며 동시에 청소년지도자 스스로도 해당 활동의 특성을 알리고 보완하되 개인의 성향에 맞는 특질과 소질, 능력과 잠재성을 발현하되 이를 인성과 관련하여 핵심역량, 관계역량,

생활역량 등을 모두 수렴하도록 알려주고 지각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역량중심 청소년활동을 가능하다고 보는가?

지난 수년동안 청소년활동역량을 주창해 온 필자로서 청소년활동이 왜 중요한가는 청소년기의 내재된 능력을 발현시키는데 청소년활동만큼 중요하고 해당 시기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반해 주는 기제가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역량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반드시 역량이라는 용어가 아니어도 청소년기에 왜 청소년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돌아보고자 함에 있다.

우리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가 구성한 활동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참여하되 청소년지도사가 초기 의도하였던 목적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목표달성의 중요한 접점으로 이해하고 그 성과를 판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으로 돌이켜 본다면 청소년지도사인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부모로 둔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어떠한 점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인 자녀가 지도자인 부모의 관점을 동일시하여 지칭하며 참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구성한 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인 자녀에게 어떠한 참여가치가 존재하며 그 참여가치가 사회생활을 독자적으로 하거나 무엇인가 미래지향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학업이든, 삶의 새로운 목표를 구성하는 지표이든,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현재 처한 입시와 학업의 대안적 관점을 수반하고 참여의 현장으로 나와 청소년지도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다면 또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청소년활동이라면 누가 과연 청소년활동에서 무자격자가 있어도 과녁치 않고 활동프로그램에서 시간낭비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활동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

사실 지금도 우리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자유로운 수단으로서 청소년활동이 필요하기에 어떠한 제약으로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기준, 자격, 운영방식, 특성 등을 범주화하여 규격화하려는 모순에 빠져있다.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 범주화하였던 청소년활동역량의 요소¹⁵⁾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선택해야 하는 전문영역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지도사가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알려주는 노력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실 작금의 청소년활동은 그 자체로서 전문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과거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권일남·김태균·이창식, 2012)도 해 본 적이 있다¹⁶⁾.

15) 청소년활동역량에 대해서 기 개발하였던 8대 역량요소와 27개 하위요소로 제시된 청소년활동역량지표를 활동현장에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향후 다양한 활동역량을 개발하여 영역을 다변화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보장해 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16)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면서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를 수정해 보려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물론 법적인 용어를 수정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의미하는 모호한 “전인성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되 이를 청소년의 역량으로 변모시키는 의미에서 수정하고 개념을 정립해 본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전인성장을 이끄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명확한 성장의 전문성을 알려줄 수 있다면 활동의 개념을 일반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규정해 본 것이다.



<그림4> 청소년기본법의 개념 재정립

자료 : 권일남.김태균.이창식, 2012.

하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말할 때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연결하며 서류속에 묻혀 지내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바꾸지 않으면 청소년활동의 가치는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4. 청소년의 역량을 보장하는 활동은 그들의 안전도 보장된다.

청소년활동은 지금부터라도 양에서 질로, 사업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는 기회로서 성장시키는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청소년에게 우리는 쉽게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자신이 원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동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의미있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이 열려져 있으며 창의적이고 청소년과 함께 그들의 생각을 읽고 눈높이를 맞추는 진실된 공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안전을 저마다 말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동은 어디까지가 안전한 활동이며 안전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소년지도사 스스로가 고민해야 한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스스로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찾고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비록 무자격자의 활동에 지금도 들러리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너도 나도 참여하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교사는 이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바라보는 현실에서 활동 자체에서 청소년들의 잠재적 역량을 발현하는 기회를 찾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체험활동시 방관자로 지내지는 않을 것이다.

체험활동에서 자신이 함께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를 모르게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청소년지도사가 가르쳐 주어야 할 때이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그런데 청소년이 스스로가 흥미를 느끼고, 동기화되며, 청소년지도사와 상호 신뢰적 관계를 유지하며, 청소년지도사가 말하는 하나 하나의 결과가 자신이 미래지향적 인간으로 설정되는 데 필요한 방향타를 지정해 주고 있다면 청소년들의 눈망울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잊어버린 미래를 보상받으려 불을 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의 학교붕괴, 교실붕괴, 학교안과 학교밖의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흥측한 뉴스와 보도를 하루라도 거르지 못하고 접하게 된다. 자신감을 잃고 흥미를 잃은 모습으로 게임과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지내고 있는 것을 이들의 잘못으로만 돌려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

자신의 좌표를 찾지 못하는 이시대의 청소년군상들에게 청소년지도사에게 오면 <그림5>와 같은 영역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그 표상대로 활동을 하면 적어도 꿈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림5> 청소년활동의 전문영역과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지침

청소년활동이 안전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청소년 스스로가 활동내에서 각인된 가치를 지각하도록 분명한 목적의식을 알리고 습득하도록 해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제 청소년활동도 왜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에게 활동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이들의 의지와 활동에서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전환점에 와 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활동을 보장하되 내면의 가치를 자각하고 참여의 조절력을 키우는 청소년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청소년정책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가도록 노력해 보자.

- ① 청소년활동의 성과가 양에서 질로 전환되도록 하자.

오늘의 청소년활동은 양도, 질도 변변치 않다. 사업중심으로, 정부에서 의도한 결과중심으로 정책을 표방하는 데 주력한 활동은 이제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재능을 발현하는 성장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어떤 활동이 가장 의미가 있고 스스로가 왜 청소년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각하는 것은 곧 활동의 필요성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내는 기제라는 점으로 인식하도록 활동의 성취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 처럼 청소년활동의 평가가 숫자와 횟수, 몇몇사람의 요구에 맞추는 식의 활동은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단순참여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여야 한다.

여전히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보면 청소년중심이라기 보다는 구색맞추기식의 운영에 매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청소년들의 활동임에도 몇몇 청소년들의 의견이 마치 그들의 대변인 것처럼 들어주는 시늬에 급급함은 이제 바꾸어야 한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이 주역이라는 점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청소년활동을 만들어 주자.

청소년활동의 상당수를 청소년의 기획력을 발휘하는 내용으로 전환하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습득할 것인지, 그리고 여건과 환경을 조절해내는 힘을 깨닫도록 하는 기획력을 발휘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조장하고 만들어가는 사업의 조정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④ 일방적 지도에서 다양성을 발견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자.

청소년들이 활동을 안정되도록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에 비례한다. 청소년활동은 수익성을 발현해내기 불가능한 정책임에도 정책입안자는 마치 선심쓰는 정책을 당연시한다. 이래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끌어내기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싼값에 비주얼을 얻고자 하는 선심은 그 결과가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⑤ 청소년의 경험수준에서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체계성을 강화하자.

청소년활동을 역량으로 개량화할 때 가능한 것은 청소년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다. 우리는 명품활동을 원하지만 활동의 명품성은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참여의 의지와 목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활동에 임할 때 청소년지도사와 이해당사자간의 합일된 가치를 규정해 낼 수 있고 그 결과는 곧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시나리오가 유지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작은 결과를 청소년활동에서 찾고자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활동의 의미가 청소년의 성장과 능력개발과 연계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국에는 이를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으로 보장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사업의 범주내에서는 한계가 임을 명시하고 청소년활동의 성공은 역량중심 개념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의 노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질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를 심화시키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항상긴장, 안전보장 등의 활동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일남 외(20132). 청소년활동론-역량개발중심-. 학지사.
- 권일남.김태균.이창식(2012). 청소년활동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란(2010). 효과적인 영어 학습 암기 모델 : Ebbinghaus의 망각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정(1995). 인지심리학: 신경회로적 접근. 서울:교육과학사.
- 윤영배(2011).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군대학 SOC과정 학생집단의 역량변화 실증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제5. 청소년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활동과 안전

이용교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 광주대 교수)

안전은 기본적 욕구입니다.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중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은 인권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안전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한국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로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보호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안전보장은 국가의 사명입니다. 국가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를 가장 강조합니다.

청소년활동은 생존을 위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스카우트 활동은 극한 상황(야만의 상황, 혹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문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야영은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연습

이고 훈련입니다. 마치 로빈슨 크로우스가 무인도에 떨어졌 때,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친 것을 ‘훈련’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자대에서 떨어져 나간 병사가 식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가정한 훈련을 활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을 놓아두고 텐트와 몇 가지의 도구만 갖고 산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생존을 위해 훈련을 하기 위한 상황이라도 물(식수)을 구할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영장은 야영장다워야 하고, 수련시설은 수련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식수조차 없는 무인도에 방치하고 ‘해병대 훈련’을 시킨 것은 아동/청소년에게는 무모한 짓입니다. 전기도 없는 곳에 둘 수는 있지만, 환자의 발생과 같은 위기상황에 외부와 통신하고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해병대 훈련’도 좋지만, 훈련이기에 최소한 ‘준비운동’은 필수이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그것조차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습이라는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본 ‘안전문제’는 선사, 선원, 교사, 해양경찰, 정부의 철저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안전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선박직 직원은 모두 배에서 빠져나오고,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한 서비스직 선원과 일부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선사는 무게중심이 변화로 위험이 커지는 것에 개의치 않고 배를 확장시켰습니다. 낡은 배를 사서 돈벌이만을 위해 수용량을 늘렸습니다. 과적을 하고 평형수를 빼내 눈가림을 했습니다.

선장을 포함하여 선원들은 ‘퇴선 명령’도 없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습니다.

객실의 승객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빠져 나왔습니다. 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승객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 살길만 찾았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가만히 있어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배에 물이 차는데도 “안전한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물이 차고 배가 기울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크게 기울었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배와 함께 수장되는 것이 명백한데,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방송한 사람도 무책임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안전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적극적인 구제보다는 선박 근처에 있는 사람만을 선별적으로 구했습니다. 큰 배가 침몰하면 주변에 소용돌이가 일으켜져서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민간 선박들이 적지 않았지만, 퇴선 명령을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감추는데 급급했습니다.

국가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구하는 척만 하였습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기관부터 이를 유관기관에 알려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른바 ‘골든 타임’을 모두 써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때문에 이를 계기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연환경에서 흔히 보는 풀 중에서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은 직접 보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냇물, 강물, 바닷물이 다르고, 바다의 경우에는 밀물, 썰물,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다르며, 해안가의 상황은 서해, 남해, 동해가 다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는 서해보다는 동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동해는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고, 수심이 깊어지면 물이 차가워서 생명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생기기 쉬운데, 그것은 운동량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보다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은 싸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는 활동보다는 돈벌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부 한모를 구입하더라도 꼼꼼히 따져서 구입하듯이, 청소년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 등이 기획한 행사일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학교가 구매하는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에는 ‘리베이트’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승진, 보직 변경 등의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뒷돈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를 보다 깨끗하게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속에서 안전을 가르치고, 체육, 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을 계기로 다양한 안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마치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가정과 교실에서 벗어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미리 교육과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가상훈련을 시키며,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행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시에 단체로 버스로 이동할 때 관광버스가 쪽 이어서 달리는 이른바 ‘새떼운행’

은 철저히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중간휴게소의 이용 등을 위해 새떼 운행이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모든 운전자가 휴대폰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급 규모로 이동하고 중간에 단체활동을 같이 하는 따로 또 같이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면 집단 이동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와 시설은 안전한 활동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안전의 비용을 줄여서 ‘로비자금’으로 쓰는 관행을 적절해야 합니다. 수련활동 과정에 안전사고가 난 시간에 수많은 선생님들은 “회를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자신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청소년 활동을 주관한 청소년단체나 시설이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형식적인 사제동행의 관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활동의 준비와 평가 등을 위해 시간의 일부를 교사들끼리 가질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활동의 과정 자체가 교육과정의 일환이기에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활동이 인솔 교사에게 대접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출장비로 특식을 먹으면 될 것입니다. 모든 접대는 결국 비용이고, 그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칩니다. 그것은 비교육적인 일이고,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올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료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라던지 신고-출동-긴급구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관리 수칙을 만들거나,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을 생활화하는 생활양식을 습득하

고, 안전사고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사회적/국가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투자는 안전을 소홀히 하여 잃은 생명의 가치에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돈을 줄이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고, 지속 가능한 자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교 lyg29@hanmail.net

주제6. 청소년상담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상담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황미영

(전.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 현.충북아동청소년포럼 공동대표)

1. 청소년 상담의 특징

청소년 상담은 성인상담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다. 즉, 청소년 상담이 내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상담과정, 상담기술과 전략 면에서 성인 상담과 다름을 강조한다.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인과 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봉사, 자문활동,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본용(2002)은 청소년 상담을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제공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와 관련해서 청소년 상담이 성인상담과 다른 점은 첫째, 청소년 상담의 대상은 청소년, 청소년 관련인, 그리고 관련 기관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때 청소년 관련인은 부모, 교사, 청소년 지도자 등 청소년 주변 사람들을 말하며, 관련기관은 가정, 학교, 청소년 고용업체, 청소년 수용기관, 청소년 봉사 및 활동기관들이다. 청소년은 특히 가족, 또래, 학교 등 주변의 주요 인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청소년의 주요 관련인과 주위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상담 목표는 심리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

달, 성장을 돕는 예방 및 교육적 측면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개입 및 지원, 자립이 포함된다.

셋째, 청소년 상담의 방법은 일대일의 개인면접뿐만 아니라 소규모 또는 대규모 형태의 집단교육 및 훈련, 컴퓨터나 전화 등을 이용한 매체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청소년 상담은 면접 중심의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게임이나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 상담의 초점은 이와 같이 성인상담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상담목표도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목표를 행동변화의 촉진, 적응기술의 증진, 의사결정 기술의 함양, 인간관계의 개선, 내담자의 잠재력 개발 이라는 5개의 일반 상담목표와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자아정체감 확립,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건전한 가치관 정립의 3개의 목표를 추가하여 8가지 청소년 상담목표를 제한하였다. 또한 심리치료가 이상심리나 정신병리 치료와 성격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상담은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청소년 상담은 소수 대상의 치료 기능보다 대다수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이다.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과업을 요구받고 있다. 기본적인 발달과업 외에도 학업과 입시환경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좁은 취업의 기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임을 감안할 때 학업과 입시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업과 입시는 경쟁지향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로인해 청소년

들은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게 된다.

2010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결과(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결과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이한나, 2011). 특히 학교생활의 질, 학업성적, 입시제도, 학교생활만족도 등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정태연 2009). 이는 입시위주의 학교 및 사회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자칫 문제행동(도벽, 공격성, 우울 등)으로 이어져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학업 등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활력이 되고 즐거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은 학업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로 이끌 수 있다(진은설, 임영식, 2011). 기존 많은 연구에서도 청소년활동이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이미리(2003)는 청소년들이 적극적 여가활동(높은 수준의 신체적·심리적 에너지를 요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이 포함됨)을 할 때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에 치우친 일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김윤나와 박옥식(2009), 정준교(2005) 역시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청소년활동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발현하게 한다. 또한 인간관계를 개선시키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며 일상생활에서의 일탈, 즐거움, 몰입 등 다양한 심리적 편익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학업, 입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그들의 잠재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활동으로 인한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또한 긍정적·부정적 상태에 처해 있는 또는 처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활동적이고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

청소년 관련 문제해결 패러다임은 치료 혹은 처방위주의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에는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준비된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이해해 가는 '긍정적 청소년 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반응하는 대응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활동 기회와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이 문제예방이나 감소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과의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도덕적·감성적·신체적·인지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은 위험성이 높고 탈선할 수 있는 불건전한 행동에 관계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현대사회의 도시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상대적인 축소와

성인들의 유희시설 급증은 학교 밖의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축소하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음성적으로 조장하여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는 청소년에게 자연접촉이나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즉 청소년활동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비해 이를 해결해 줄 공간의 미개발과 시설부족 및 기존 시설의 소극적인 활용으로 청소년의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응되는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및 컴퓨터 게임과 학업부담으로 인해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집단 활동을 쉽게 할 수 없으며 가까운 곳에서 흥미를 느끼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활동성 있는 기회 참여도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인격을 연마하고 그들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심신 단련과 자질을 계발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변화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도전의 뜻이 강하므로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발현욕구를 노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권일남 외, 2006).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현실생활에 있어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회의 불안,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욕구불만, 심리적 억압 등에서 벗어나고자 공상, 여행, 오락 등을 통하여 욕구의 배출구를 찾는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조직의 목표와 역할, 가치 및 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시킴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내의 사회적 기대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분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 창의성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기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활동 그 자체는 청소년들에게 통제력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각 개인의 개성과 취미에 맞는 자기 생활의 즐거움을 꾀하게 하며 청소년들이 흥미, 건강상태, 특기 등을 관찰하는 기회를 만들어 건전한 마음을 닦는데 도움을 준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활동들은 학교교육 이상의 인지적·정의적·심리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행, 폭력, 범죄 등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예방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인격형성 및 심리, 사회적 성숙을 불러 일으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공동협력 작업을 통해 일구어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통합적·계속적·총체적인 자아형성을 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참여자 개인이 활동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자발적인 활동이며, 참여자 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실행해 보는 체험적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선용(1993)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은 각자의 자유시간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욕구불만을 건전하게 풀어주는 좋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의숙(199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각종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외모와 신체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가치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율성 등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근욱(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타인과의 관계 개선, 개인의 능력 고양, 개인 삶의 질적 가치 제공 등에서도 효과적이며 학습자와 지도자간의 상호 집단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높은 효율성을 지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한다.

3.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청소년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한명도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학교 내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전히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세월호 사건이후 학교에서 진행되던 수학여행은 물론 운동회, 소풍 등 소규모 행사까지도 전면 중단되었다. 시설의 안전을 점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수학여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던 운동회, 소풍마저도 중단됨으로써 학교는 학습,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쟁 장소로만 기억되고 선생님 친구들과의 추억마련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성증진, 대인관계 향상 등 여러 가지 발달단계상 좋지 않다.

따라서, 안전을 담보한 학생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인원규모의 축소와 운영시기, 장소 등을 소규모 단위인 학급, 또는 모둠의 요구에 따라 폭넓게 운영하고, 전문가의 총괄진행을 통해 철저한 안전을 담보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운동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시대 흐름에 맞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사회는 급변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활동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투자없이 이익을 기대할 수 없듯이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변화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지역 간의 격차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다.

현재, 음악치료, 미술치료, 동작치료 등 다양한 동적인 치료기법들이 만들어져서 내담자에 맞는 치료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칭, 활동치료”라는 명목으로 치료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치료기법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대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전국의 청소년기관, 단체로 확대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의 공간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으로 활동배경을 확장한다면 더욱 많은 영역으로 펼쳐나갈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다양성도 충족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상담, 활동을 구분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면서 규모와 위상을 축소하기 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스스로의 적성과 행복한 여가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미 위주의 체험활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꿈을 심어주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체험을 통해 순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닫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나.박옥식(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 구본용(2002). 청소년 상담의 특징.
- 권일남.정철상.김진호(2006). 청소년활동지도록, 서울: 학지사.

- 배선용(1993).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의 실태와 장애요인 및 결정요인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의숙(1998).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미리(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 이광현 소장. 친인권적 청소년수련활동 어떻게 운영해야할까?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 임근욱(2007).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요도와 만족도 연구.
- 정준교(2005).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아르바이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진은설.임영식(2011).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 집단의 특성 그리고 활동 만족도의 관계.
- 전경숙.정태연(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최인재.김지경.임희진.강현철.이한나(2011).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여성가족부.

트라우마 이해와 관리를 통한 **청소년 활동과 안전** (PTSD)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임 재 호

순 서

1. 트라우마, PTSD에 대한 이해
2. PTSD 에 대한 접근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
3. 트라우마 치료적 접근 현황(미국, 한국)
4. 청소년 트라우마 지원과 관리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폭풍, 홍수, 지진, 눈사태, 테러, 전쟁, 강간, 자동차 및 항공기 사고 후 발생하는 심적인 장애.
증상) 불안장애, 공포장애, 대인공포, 환각, 환청, 자신감 결여, 자해, 만성적 성격변화, 절도, 강도, 알코올, 약물, 궤병, 자살, 상급자공격, 복종거부, 도피, 분별력 상실, 강박 등
- 복무 부적응 및 사회생활 적응 실패

예)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파병 병력 귀환 이
급증하는 현상

미군파병 3명중 1명이 정신장애 발생(이라크, 아프칸 참전군인회, 2009)

세월호참사, 윤일병구타사망, 2005년 GP 총격사고, GOP

PTSD는.....

장애(Disorder) 인가?

부상(Injury) 인가?

PTSD 는...

- **결정적 사건** (Critical Incident)
- **결정적 계기** (Critical Opportunity)



PTSD, 접근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



86만명 인간시한폭탄..성인게임중독자들

00일보, 2011.9.9

- 취업, 가정 불화, 스트레스 - 매일밤 게임
- 청소년과 달리 통제, 제어해 줄 사람없음
- 모방범죄, 묻지마 살인, 이혼, 폭력

*19세 ~39세 성인 5.6%, 약 86만명

- 청소년기 게임중독이 성인중독으로 이어짐

* 성인이 자제력 있어서 게임에 덜 빠진다는 착각

중고생들 강박장애 시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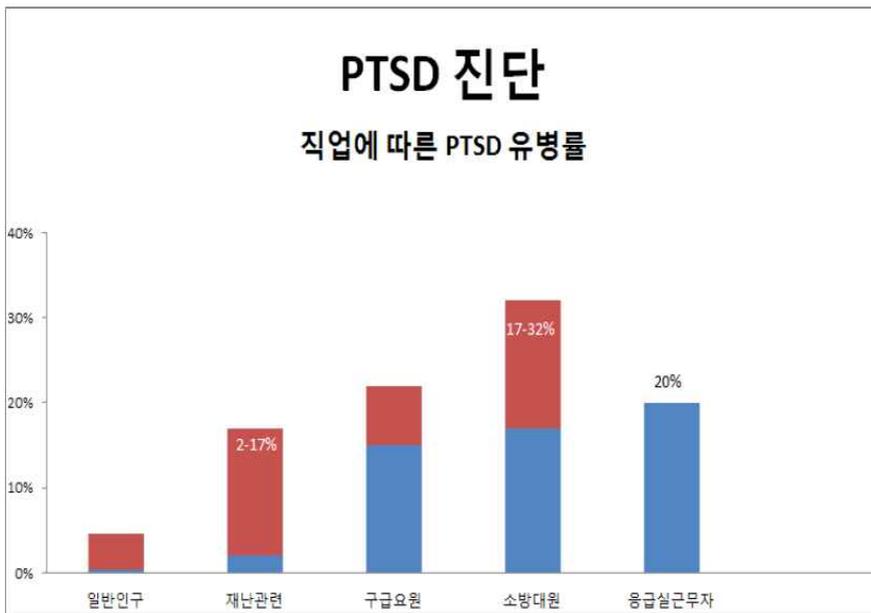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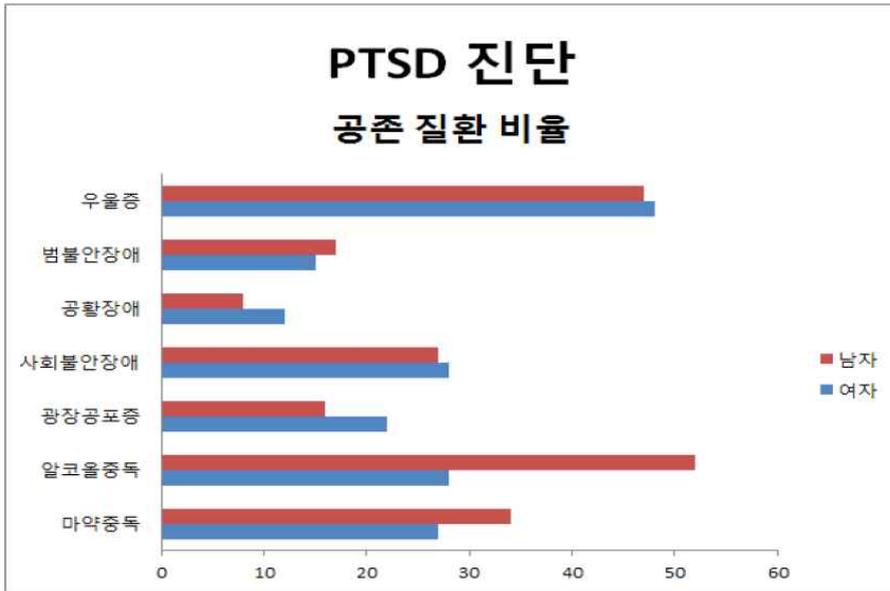
부모의 과잉통제, 입시 스트레스가 원인
2만여 명 고통... 성적 떨어져 학업 포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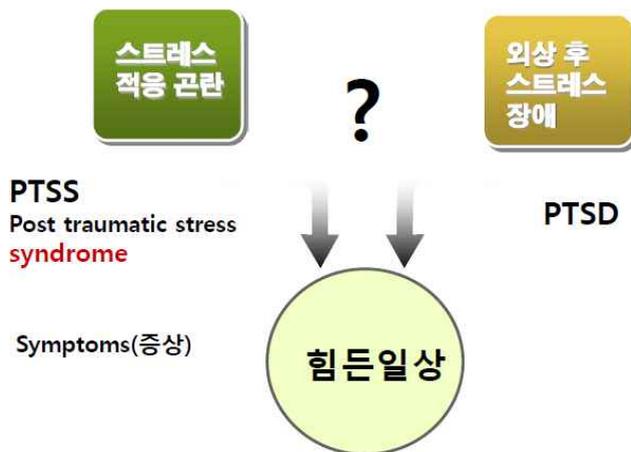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

- 매년 증가하는 재해(자연, 인적 재해)
 - ex) 쓰나미, 태풍, 지진, 산업시설폭파 사고
 -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군,경찰,소방,학교)
 - 평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 (재난 담당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소방관 등)
- * 학교폭력, 성추행, 가정문제 등 증가





PTSD 구분 어떻게 하나?





의존, Addiction

중독

상담의 기능과 역할

문제해결
(정신적, 심리적 문제)

+

자아실현
(자아발견, 자아성장)



트라우마 심리교육(PTSD)의 효과



일상생활속 트라우마

- 왕따, 학교폭력
- 학대, 실패의 충격
- 사고 목격 또는 직접 경험
- 가정 불화 - 이혼, 알콜, 도박 등
- 긴급문제
-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 소방관 40% 우울증세, 20% 5년내 사표



자주 볼 수 있는 부적응 사례

- 방독면 착용 불가 : **호흡곤란**
- 큰 소리 민감 : 수류탄, 총소리, 비행기소음, 포사격 등
 - * 심장요동, 호흡곤란, 공황, 멍해짐 등
- 반복적인 행동, 특정행동 반복(어깨 으쓱거림), 눈 깜박임
- 밀폐된 공간에 못 들어감 예) 병커, 지하실, 탱크 등
- 술먹고 주사부리기, 운전중 돌변, 취침중 이상행동 등

늘어나는 사건, 사고, 자연재해



군견도 PTSD 증상



임진강 방류

“어보... 아들이...” 차마 절을 마치지 못하고... 9월 북한의
 댐 방류로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임진강 참사’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유가족 3명이 13일 참사 현장인 경기 연천군 임진교 하류 모
 래섬을 찾았다. 왼쪽부터 이경화 한지연 김선미 씨, 이들은 북어
 한 마리를 놓고 각기 청주 석 잔을 모래에 뿌린 뒤 절을 했다. 이
 들의 호느낌은 통곡으로 변해 두 번째 절을 채 마치지 못했다. 연
 천=조종업 기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트라우마 치료적 접근현황



구제역 PT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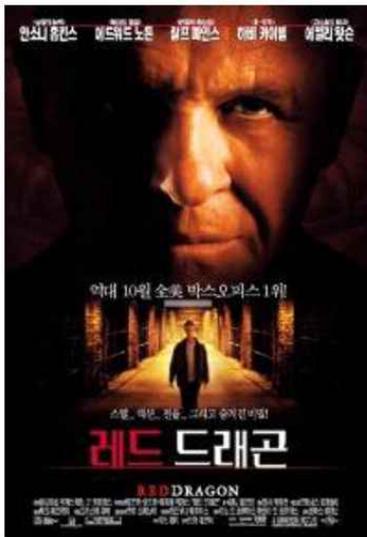


- 공무원 36,000명, 민간인 32,400명 동원- PTSD상담 1.7%
- 재난, 사고 대비 공무원에 대한 평시 교육 및 지식, 대처방법 교육 매우 미흡

증상: 불면, 불안, 동물울음소리, 악몽, 계속 눈물남.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PTSD 증상

[연평도 포격 2년] 연평도 주민25명 상담, 전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2267-X051-7a
Reba McCarron (EMILY WATSON) sees a different side of
Fiona Doolittle (RALPH FIENNES).
Credit: Glen Weldon
© 2012 Universal Studios. ALL RIGHTS RESERVED.



PTSD 치료시스템현황

- 주관 부서의 부재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 통합된 PTSD 심리치료 시스템의 부재

일회성/상이한 심리치료

(국립병원, 정신보건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 이상심리의 한 부분으로 관리

- CSTS(Center for the study of traumatic stress)

-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Military one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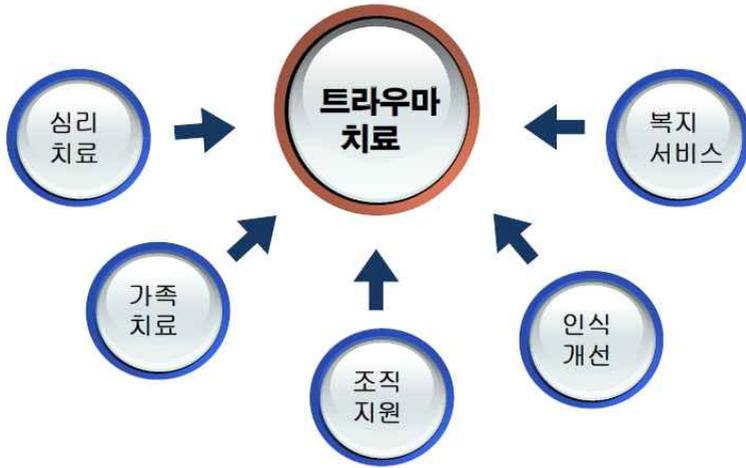
미국 PTSD 치료

- AFMOA(Air force medical operation agency)

- DHCC(DoD Deployment health clinical center)

- NC-PTSD(National Center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트라우마 치료에 요구되는 요소



외면 하는 한국 VS 찾아가는 미국

• 부상병의 울분(연평도, 연평해전)

- 연평도 부상병, 김명철, 김진권일병 등
-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을 구분 못하는 국민 * 장릉에 쳐 박아둔 훈장

• 미, 이라크전 부상병



국가, 이웃이 안아준 6년 행복했다, 폭발물 다리부상 갠스너 증사

• 미, 911 간접목격자까지 6만명 심리치료

8년 지나도 학교에 공문 보내 피해자 찾기

911 테러 이후 27,000명 PTSD 환자로 등록, 새로운 환자 등록

우리가 해야할일



32

트라우마 치료적 접근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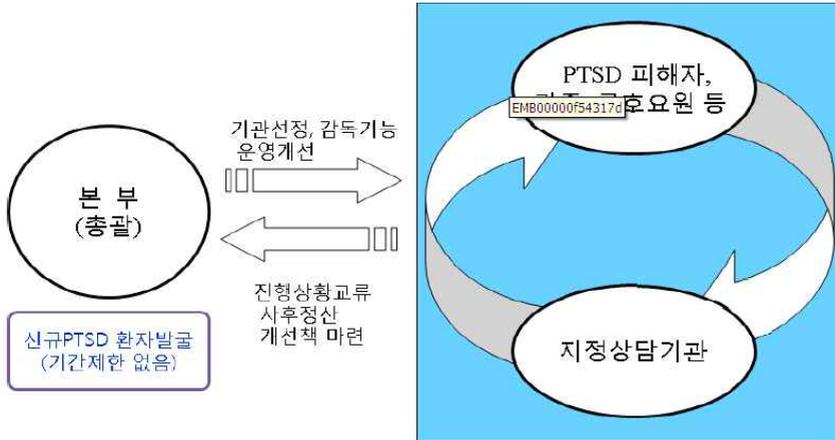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

- 트라우마는 평생을 통해 관리하고 지원
-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사건,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음
-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가까이 하는 문화 필요
예)매듭을 풀고 가야 해, 네 날개를 펴고 살아야 해
- 트라우마 전문, 청소년 상담 + 가족상담 연구 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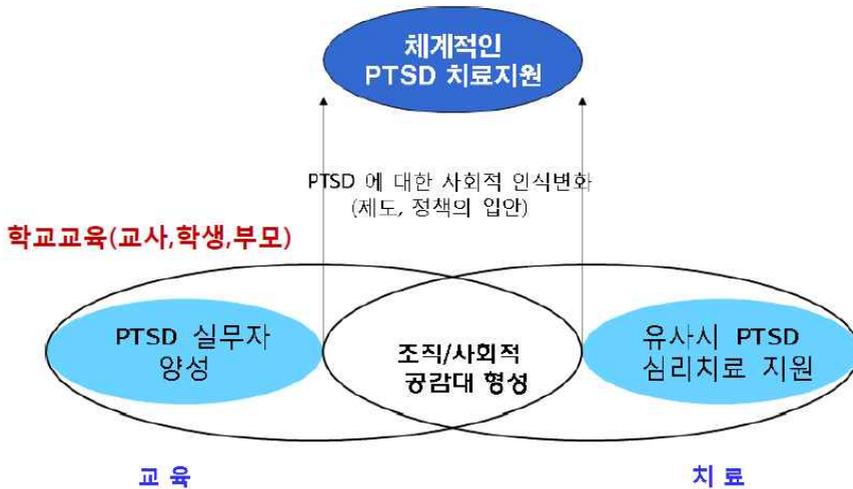
전국 기관 활용



PTSD 치료 체계 구축



교육과 치료의 병합



PTSD 대처와 해결방법(개인적 접근)

심리적 탄력성(Resiliency) 확보

- 예견 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과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평소 우울감, 무거움, 답답함, 분노, 중독성, 강박성에 대한 해결작업 선행(개인상담, 집단상담)
 - 정신력과 연관된 개념은 아니다
 - 평소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점검 필요
- * 탄력성 :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심리적 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제 8. 학부모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안전 제안
 - 주제 9. 학교사회사업(교육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 주제 10. 청소년활동진흥과 안전, 둘을 안을 수 있는 대안의 모색:
법 제도적 관점과 시설의 차원에서

주제8. 학부모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왜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가?

이후식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대표)

끊이지 않은 참사를 겪으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희생의 댓가로 얻은 소중한 교훈과 자성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우리사회에 정착시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아가는 빨리빨리 문화의 사회구조가 안전불감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어졌고 많은 유가족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 원통한 마음에 신음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사고원인, 수습과정, 그리고 대책마련에 있어서 정부가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다.’는 비난처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32명),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501명),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씨랜드 화재(23명),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화재(52명),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192명), 2009년 2월 9일 화왕산 역새태우기축제 화재(9명), 2011년 7월 27일 춘천마적산 참사(13명), 서울 우면산 참사(16명), 2013년 7월 18일 태안해병대캠프(5명), 2014년 2월 18일 부산 외대생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304명), 2014년 5월 26일 고양터미널화재(8명), 2014년 5월 28일 장성효실천사랑

나눔병원화재(21명)...

위 모든 참사는 사고시일 장소는 다르지만 사고원인과 사고수습과정 그리고 사고대책까지 모두 유사하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최근 1년도 안돼서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참사를 시작으로 경주마오나리조트참사, 세월호침몰참사로 이어지면서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의식과 불안한 공포심으로 전 국민의 사회생활이 위축되어 경제까지 침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침몰 참사라는 대형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당장 시급한 사태수습과 국민안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느냐 아니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오대양 육대주로 진출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피로 얼룩진 희생의 땀가로 얻은 진리와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할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여 국민의 안전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3월 4일 박근혜대통령은 "제가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었다. 각 부처별로 위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체크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소관을 따지고 업무 영역을 따지느라 업무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고 관련조직을 실에서 본부로 격상한 점을 감안하면 연이은 대형참사는 더욱더 큰 문제임을 여실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정부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보여준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 태안해병대캠프 참사의 전말 〉

1. 사고개요

2013년 7월 18일 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생 198명은 태안군 안면도에 소재한 ‘안면도해양 유스호스텔(주, 한영 T&Y)’이 운영하는 사설해병대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캠프 둘째 날 오후 4시경 IBS훈련을 마친 1조 80명은 구명조끼를 벗어 보트에 벗어 놓고 한쪽 해변에 10명씩 8줄로 정렬하였고 무자격 교관들은 일명 ‘뒤풀이 훈련’을 하였습니다.

마무리훈련까지 마친 후,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 방치하다 40여명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분초를 다투는 아비규환이 벌어졌고 일당교관들의 책임감 결여와 어설픈 초기대응으로 결국 5명이 실종되어 다음날 익사체로 인양 되었습니다.

2. 사고원인

1)관계기관 태안군청과 태안해경

- 사고업체 인·허가 과정의 비리 의혹
- 관리감독 소홀과 형식적인 점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행정
- 허용 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 승인 직권남용
- 안전장비인 계류장설치에 관한 이중 잣대로 훈련시 미설치운영
- 불법모래 채취로 발생한 인위적 갯골 발생 묵인
- 불법행위에 대한 업체 봐주기식 처벌과 준수규정 위반
- 군유지 및 국유지 불법사용 묵인
- 청소년 유해업소 여관과 유스호스텔 한 단지 내 편법 사업허가

2)한영T&Y(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

- 병영체험활동(해병대 캠프) 비인증 사설업체에 일괄위탁 경영

- 운영 책임자 및 청소년지도사 허위등록 운영
- 안전장비 미 보유 및 보유 장비 미사용
- 비용절감에 기준한 사설업체선정으로 상대적 이윤추구
- 기업 논리로 상습적 불법 수용인원 초과운영
- 불법모래 채취 작업 알고도 묵인 후 훈련 진행

3)하청업체 (주)코오롤트레블

- 무자격 일당교관 선임 해병대캠프 실시
- 사고당시 교육대장 부재중 캠프강행
- 훈련시 인명구조사 미배치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부족
- 지휘체계가 무너져 역할분담 비정상화

4)학교

- 형식적인 사전답사와 무책임한 계약체결
- 담당교사 모든 캠프활동 미 참여
-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인솔자로서 책임감 결여
- 본분을 망각한 음주회식으로 초기대응실패

5)여성가족부

-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소홀
- 민원인에 대한 민원해결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참사발생
- 유스호스텔이 편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도록 해태한 업무태만
- 유가족이 의뢰한 감사청구에도 미온적 대처

3. 사고수습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은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었고 관리감독도 형식적

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자신들의 죄를 덮어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태안해경이 주축인 수사본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수사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명하며 축소수사와 은폐수사로 마무리한 것은 더욱더 많은 의혹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꼬리자르기식 마무리한 현재법정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송일종 수사본부장을 비롯해 형사 22명이 30여일에 걸쳐 사설해병대 캠프사고에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하여 수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간부족과 적은인원이란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속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특검을 통해 초등수사부터 '전면재수사'해야 된다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입니다.

당시 중대한 역할을 맡았던 김경호교육대장과 권순찬주교관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켰고 사고발생 이전 6월 12일경부터 일주일동안 모래 채취사업이 불법으로 사고현장에서 진행되었음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부실수사의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송일종 수사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음을 들어 오백근(한영티앤와이) 김지화(K코오롱여행사)대표를 구속수사 입장을 밝혔으나 거부한 서산지청장의 행위는 총체적 부실수사의 시작으로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판례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판례(공사현장의 시공회사 사장의 판례 89도1618)를 들어 과실치사 혐의에서 두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모든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학생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아무말도 없이 빠져나온 일당무자격 김태민 교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일축하며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김태민 아이들을 죽이려고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서산지청에 있는 한 공소장변경은 없습니다.'고 말입니다.

사고 원인이란 갯골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사고시간을 조작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장검증을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은 왜 무시하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해경과 태안군청 그리고 한영티앤와이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음이 확실하고 오백근대표 뒤에 숨은 한영나염 박현섭사장이 실세임도 이미 드러났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서산지청의 명백한 과오입니다.

당시 송일종(과장)수사본부장이 군산해양경찰서 서장으로 특진 부임하였고 서산지청장도 특진하여 청주고법 차장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상황을 전관예우를 해준 댓가란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 후 7월 22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본부장(나승일차관), 부분부장을 위시하여 사고대응 총괄반, 사고조사반, 사후대책반으로 나누어 사고대책본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재로 사후대책반(보상팀)으로 사무관 1명만 파견하였고, 서산지청의 초동수사가 일방적 짜맞추기식 편협수사가 되도록 방관하여 사망원인이 베일에 가려졌으며 업체대표들이 과실치사혐의에서 거액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 면죄부를 받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7월 19일 유가족과의 만남 자리에서 아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하여 교육과정상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를 시간대별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진상 규명과 사고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장관의 명예를 걸고 확고한 소신과 실질적인 내용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서남수장관은 자신이 사고를 당한 당사자라 여기고 모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언제든 만나서 의논하자고 위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행동이 자리보존을 위한 가증스런 위선이었습니다. 또한 보상팀도 장례식 날 합의서 작성 시 유가족이 경황없는 점을 악용해 법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문구를 인용하여 작성하였고, 공주대 총장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액을 합의서에 적을 수 없다며 별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공주대총장의 말이 거

짓으로 드러나 유가족은 왜 근거없는 말을 했냐고 따져물었고 자신의 입장에선 그럴수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4.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모든 사고는 인재(人災)이며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선 대부분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점점 그 희생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참혹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다 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세월호참사에서 잘 나타난 좌충우돌에 우왕좌왕하며 혼선을 빚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가 일선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썩을대로 썩어버린 현 정부의 부정부패 행정과 돈벌이에 목숨 거는 부도덕한 악덕기업인의 잘못된 기업윤리와 맞물려 안전사고는 이미 예약되었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관행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조직적으로 고위직을 잠식하다 보니 부정부패한 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관행적으로 상납과 향응이 제공되어 공정성이 무너지고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과 허술한 관리로 일관하다 결국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처럼 악폐가 공존하고 있으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윗선 눈치나 보면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 고개숙인 소인배가 이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지금껏 정부가 안타까운 참사를 겪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숙하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생활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잘못된 관행도 반드시 척결하여 썩은 우물을 맑게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망의 작은 틈을 비집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였던 몰지각한 기업주의 사리사욕이 대형참사를 낳았으며 이들의 뼈뿔어진 책임 의식이 이 나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안전불감증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참사를 유발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업주나 이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의 처사에 크고 작은 참사로 이어져 많은 학생들이 희생 되었음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현실에 서민은 통곡하고 분노하며 길거리에 내몰려 피 토하며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물질만능주의에 노예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돈과 맞바꾸려는 악덕기업주의 횡포에도 철퇴를 내려 새로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합니다.

특히 처벌기준에 대한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수의 희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판례적용에 있어서 지난 판례를 고집하기보다는 죄의 본질을 따져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돈 있는 기업주가 안전에 직접 책임지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 안전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장기적, 단기적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 위기관리능력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대책 〉

1. 시급한 단기적 대책

- 1). 인솔교사의 책임감 부여 및 안전강령 이수
- 2). 청소년 체험활동 사전안전교육 의무화
- 3). 이동수단의 안전점검 여부 규정 토착화
- 4).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매뉴얼 학과교육 실시
- 5). 여행후기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문서화 및 공유화
- 6). 안전전문가 인원확충

2.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

- 1). 거부권의 올바른 교육
- 2). 생명의 가치 및 존엄성 교육
- 3). 빨리빨리 문화의 장·단점 교육
- 4). 역사교육 및 예절문화 교육확대
- 5). 참사의 올바른 인식 및 교훈 교육
- 6). 안전교육 연수원 및 체험관 확충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보고도 못본척 듣고도 못들은 척하며 살아가는 기성인들도 세월호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주와 깊숙이 뿌리내린 배금주의 사상, 안전불감증의 인명경시 사회구조, 빨리빨리 문화가 빚어낸 적당주의사상, 일당의 임시직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정부의 초등대응 실패와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 부재 그리고 진실규명을 통한 강한책임자 처벌의지 결여 및 임기응변적 대책마련까지 이 모두가 연이은 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쉽게 잊어버리는 냄비근성의 국민정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충분히 고통스러운 최악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으며 더 이상 물러서서도 안 되는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을 온 국민이 인지하여 깨어나야 할 것이며 정부와 기득권 그리고 정치권은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귀하고 순수한 맑은 영혼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은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모두가 나서서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만 미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신-세월호 참사의 제 2의 비극**

수많은 참사의 전례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는 진실을 쉬쉬하며 감추고 덮어 온 것이 사실이었으며 그 동안의 유가족들은 권력의 힘에 고개를 숙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식을 강탈당하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 놓고 통곡하는 유가족들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길거리로 내몰려 1인시위, 천만인서명운동, 1900리 십자가 매고 도보행진,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면서 외치는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사를 막은 단초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원인과 그 원인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대로 규명해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례 없는 참사가 발생했듯이 전례 없는 특검과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실규명과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사고를 참사로 만든 박근혜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고위공무원까지 한마음 되어 이해타산을 접어두고 오로지 연이은 참사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참사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로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제 9. 학교사회사업(교육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전구훈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부소장)

I. 들어가며 (개념정의)

1.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 관점

학교사회복지란 학교체계 내에서 전문능력과 자격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유발조건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제공하는 활동이다(주석진외, 2013).

한 예를 통해 설명한다면, 한 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 PC방에서 전전한 사례가 있었다. 알고 보니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를 출결을 신경 쓸 수가 없었고, 많은 복지기관에서 후원금을 받았지만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아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모여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아이가 학교에 나오는 것은 지역의 복지관에서, 학교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과잉행동을 하면 학교 내 복지실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는 지역의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머니의 치료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지원은 멘토링으로 도움을 주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지원한 것이 중요했다. 이제 아이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전구훈, 2014).

학교사회복지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였다.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일상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였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체계)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생지원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적절한 지원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는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관점을 활용하고 있다.

2.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3항).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 건전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정서함양 및 자질 개발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도 큰 범주에서 본다면 청소년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청소년활동을 논의할 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적 활동을 뜻한다(노혁, 2012).

3. 안전(한 학교)

물리적(신체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사고, 범죄)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안전이 보장되는 학교가 안전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범죄나 교통사고, 학교 내의 노후된 시설이나 학생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학교 안전이다(전구훈외, 2011:115-12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안전한 학교’를 위한 노력들은 인간과 환경

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아닌 드러난 문제에게 초점을 두었다. 특히 사고나 분쟁에 초점을 두고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손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지금까지 학교 안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져 온 개념에는 교내외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교안전’이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전한 태도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사고가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고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2009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 안전사고 사례집에서는 교육활동 중 일어나 사고와 시설물 관련 사고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예시는 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처리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표 1> 안전사고 구분

구분	내용
교육활동 중 일어나 사고	체육(달리기, 농구, 축구 등), 과학(실험, 실습), 수학여행, 야외활동, 축제, 등하교(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등), 놀이(기절놀이 등), 급식(화상 등), 추락, 익사, 체벌 등 교사와 관련된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
시설물 관련사고	시설, 물품 관련(선풍기, 방화셔터, 구조물 등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 체육시설 관련(축구골대, 그네), 감전사고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학교와 관련되어 국제안전학교(International Safe School)로 공인받은 두 학교 중 성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생활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워킹스쿨버스, 마포사랑 실버캡 교통봉사단 운영, 유괴예방, 배움터 지킴이, 성교육 및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 교육, 외부인 출입증 패용 등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과 지역이 함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II. 안전의 현주소

1. 학교안전의 실태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실태는 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이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질 것과 학교 내 체벌 금지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학교와 교육감이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교통안전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보험개발원(2013)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0만7332건, 2011년 10만1811건, 2012년 10만2380건이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만건의 사고로 하루평균 284건, 1시간에 약 1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 안전사고 발생분석

학교안전공제회 201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105,088건이었으며, 그중 체육시간(28.4%), 점심시간(18.7%), 휴식 및 청소시간(17.8%)에 발생하였다.

<표> 2013년 안전사고 발생통계

(단위 : 건, %)

구분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수업시간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합계
건수	29,868	19,601	18,698	15,924	9,065	6,024	5,908	105,088
비율	28.4	18.7	17.8	15.2	8.6	5.7	5.6	100.0

학교안전공제중앙(2014), 2013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통계

주로 발/다리(34.2%), 손/팔(31.4%), 머리(20.6%)를 많이 다쳤으며, 그 다음으로 치아(구강)의 부상이 있었다.

<표> 2013년 안전사고 부위별 통계

(단위 : 건, %)

구분	머리 (두부)	발	손	다리	팔	치아 (구강)	기타	흉·복부	합계
건수	21,646	21,670	20,517	14,273	12,456	10,466	2,111	1,949	105,088
비율	20.6	20.6	19.5	13.6	11.9	10.0	2.0	1.9	100.0

학교안전공제중앙(2014), 2013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통계

2012년 발생한 13세미만 아동동에 대한 범죄 중 아동유괴(약취·유인)은 92건이었고 방과 후인 오후 시간대(12:00-17:59)에 43.5%가 발생하였다. 성폭력은 975건으로 주로 밤 시간대(20:00-03:59)에 42.6%가 발생하였다 (대검찰청, 2013:93).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초등학교 1~2학년 등 저학년일수록 높았고 활동량이 많은 5월과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정의 달인 5월(9.6%)과 여름방학철인 8월(10.4%)이 많았다. 주말사고는 토요일(21.9%) 일요일(20.3%) 순으로 많았고 평일은 하교시간대(15~18시)에, 주말은 오후 시간대(13~17시)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사고원인별로는 △신호위반(40.6%) △횡단보도 위반(26.4%) △중앙선침범(24.5%) 순으로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위반 사고는 전체 평균(10.9%)보다 2.5배 높았다(보험개발원, 2013).

3. 안전사고 관련사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노후된 시설이나 학생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 내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범죄, 외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 외 안전사고는 주로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개인이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심리·정서적인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내 안전사고>

▶ 시설미비에 따른 안전사고

- 시설(구조물) 붕괴 또는 미비(난간에서 추락 등)
- 물품 파손(선풍기, 방화셔터 등)
- 체육시설(축구골대, 그네 등)
- 감전사고

▶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

- 체육(달리기, 농구, 축구 등), 과학(실험 실습)
- 축제, 급식(화상 등)
- 교사와 관련된 사고(체벌 등)

▶ 학생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

- 다른 학생과의 부딪힘으로 인한 상처
- 놀이(기절놀이 등)
-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학교 외 안전사고>

- ▶ 등·하교길(교통사고 등)
 - 횡단보도, 골목길에서 차량에 의한 사고
 - 차량 승하차시 발생한 사고
 - 범죄사고(유괴, 납치 등)

- ▶ 교육활동 중 일어나 사고
 - 수학여행, 야외활동
 - 추락, 익사 등

<심리·정서적 안전사고>

- 따돌림
- 희롱과 협박행위
- 무단결석(장기결석)
- 자살

4. 학교안전에 관한 외국사례

외국의 경우 많은 교육구나 학교가 안전 수칙이나 비상시 학부모나 학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제시하며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신고체계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시하고 있다(전구훈외, 2011:120).

예를 들면 ‘괴롭힘(bullying)’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교육적 혜택이나 기회 및 수업 이행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을 침해함으로써 유해한 교육환경을 유발하고, 인종, 국적, 결혼신분, 성적 경향, 성별 구분, 종교 및 지체부자유 등과 같은 실제 또는 추정된 개인 성향으로 협박하거나 심하게 괴롭히는 언어행위를 포함한 모

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행위도 언급하고 있다.

- 구타, 발로차기, 밀치기, 침 뱉기, 머리 뜯기, 또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상대학생을 구타하거나 가해하도록 시키는 것
- 조롱, 별명 부르기, 비방하는 말 또는 대면이나 이메일로 협박하는 것
- 비하해서 괴롭히거나 놀림거리로 만드는 행위
- 무례하거나 위협하는 몸짓
- 따돌림 또는 학생을 거부하는 행위
- 협박, 금품갈취 또는 노동 착취
- 해로운 소문이나 험담을 전하는 것

메릴랜드 주 교육국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항목까지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나 교육청, 관련법이나 정책은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한 개입, 사후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Ⅲ. 나가며

안전망이란 ‘빌딩같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이나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치는 그물’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망을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안전망 자체가 없었고, 있다고 해도 너무 약해서 위에서 조금만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하였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 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튼튼한 안전망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안전망이 찢어지는 사고를 경험하여도 튼튼한 안전망으로 교체하기 보다는 찢어진 곳을 꿰매는 정도로 그칠 것 같고, 예외적으로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 놓아도 안전망이 아까워서 잘 보관하느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도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 긍정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적 활동의 물리적인 안전망도 부실한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사치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향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증가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자면 체험적 활동 자체 안전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하지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경제적·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고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게 단순히 가르치는 기능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에 의한 생리적욕구, 안전의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이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것은 가능하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학교 배치와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주요 학교안전사고 사례
 노혁. 2012.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보험개발원. 2013. 보도자료
 전구훈. 2014. “학교” :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이 되려면. 복지이슈 Today vol.15.
 전구훈·윤철수·진혜경. 2011. 안전한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인식과 과제. 학교사회복지 21
 주석진·조성심·라미영·방진희·엄경남·이종익·전구훈. 2013. 학교사회복지론. 양서원
 학교안전공제중앙. 2014. 2013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통계

주제 10. 법제도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안전, 둘 모두를 안는 대안모색에 대한 단상(斷想)

- 법·제도와 청소년시설의 관점에서 -

김 민(순천향대 교수)

모든 이가 공감하고 또 동의하겠지만,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압축성장으로 상징되는 우리사회가 빚어낸 비극적 참사로 기억될 것이며, 그간 간과했던 인간(국민) 생명에 대한 존엄과 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¹⁷⁾. 물론 일부 언론과 검경은, 이

17) [필자사족]: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특별한 애도를 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윤리적,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 말에 필자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꾀꾀 감춰뒀던, 그래서 상기하기조차 싫은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굳이 표현하자면 수치스럽고 거북한 그 어떤 느낌과 함께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어떤 임계점에 도달한 ‘기막힌’ 느낌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현대사가 안고 있는 자본절대주의, 터보자본주의(turbo-charged capitalism), 윤리 없는 자본주의의 치부를 드러낸 상징이자 일대 사건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산자들에게 마땅히 있다. 이 부담을 오롯이 생존 학생들과 유족이 짊어지게 하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 처연하다. 이런 절곡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 안타깝고 부당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한 시도 늦춰서도 아니 되며 그 의도를 왜곡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희생된 이들만을 위한 ‘진혼곡’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디딤돌’이기에,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모든 이를 위한 기본적인 규범, 곧 헌장(憲章)이기에.

참사의 원인은 고 유병언 일가이자 청해진해운이라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길가에, 팽목항에 나부끼는 ‘노란 띠(리본)’가 걸히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몸통에 대한 성찰 없이 깃털만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안전사고와 청소년활동

참사가 준 충격은 무척 컸다. 범인(凡人)들로 하여금 삶 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갖게 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청소년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직격탄을 맞았다. 일련의 참사 피해자들이 청(소)년들이기에 그간 안전사고에 취약한 청소년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평가, 컨설팅 등이 줄을 이었다. 수학여행을 비롯해 학교단체수련활동(일명 학단) 등 자연권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전면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청소년시설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시도에 휴·폐지 신고된 기관도 연이어 나타났다.

7월26일자 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와 전국유스호스텔협의회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일련의 참사와 뒤이은 정부정책에 의해 전국 200여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이 입은 손실은 시설 당 평균 10억 원 이상이며, 따라서 향후 청소년활동 정상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국립청소년수련원에 버금가는 정부지원책이 핵심)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된 민간의 자본 보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읍소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시도에 휴·폐지 신고된 청소년시설이 19곳에 이르고 이 중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휴·폐지된 곳은 수련원 7곳(휴폐지된 8곳 중 1곳은 세월호 사고 이전 휴지시설), 야영장 2곳, 유스호스텔 6곳 등 전체 15곳으로 자연권 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표 1).

<표 1> 청소년수련시설 휴·폐지 현황(2014. 7. 기준)

구분	합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특 화시설	유스 호스텔
등록시설	781	186	179	230	43	9	134
휴지시설	12	-	7	-	1	-	4
폐지시설	7	-	1	3	1	-	2
소계	19		8	3	2		6

- * 휴·폐지 시설은 시도에 신고한 시설
- * 휴지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1개소 세월호 참사 이전 휴지시설
- * 휴·폐지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은 세월호 참사와 관계없음

하지만 휴·폐지만 아니 했을 뿐, 현실적으로 문을 닫은 곳이 많다. 자연권 시설의 경우,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이후 우수등급 이상 시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10일 교육부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 시설만 학교가 이용하도록 한 지침 시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술되지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이의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329개 자연권 시설 중 최우수와 우수등급을 받은 청소년수련원(99곳), 청소년야영장(9곳), 유스호스텔(49곳) 등 총 157곳만이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참고: 표2).

<표 2>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2014. 7. 기준)

시설유형	평가대상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미평가
청소년수련원	168	37	62	7	6	8	48
청소년야영장	36	3	6	5	2	3	17
유스호스텔	125	19	30	5	16	6	49
계	329	59	98	17	24	17	114

이마저 큰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인해

대부분 자연권 청소년시설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투자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많이 받았고, 또 세월호 참사이후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연기 또는 취소됐기에 자칫하면 대다수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4월22일부터 5월8일까지 청소년수련원 180곳, 유스호스텔 127곳 등 307곳(79곳 취합, 취합률 2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합된 79곳 중 39곳의 평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도 117%에서 2013년도 132%로 증가했다(참고: 표 3). 또 79곳 중 50곳의 시설 당 평균 영업이익은 2012년도 4천1백27만원에서 2013년도 △5천1백93만6천원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참고: 표4).¹⁸⁾

<표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자본대비 부채비율 비교(2012, 2013년도 비교)

단위: 천원

년도	자 산	부 채	자 본	자본대비 부채비율
2013	11,360,150	6,311,586	4,789,635	132%
2012	10,963,181	5,740,286	4,901,785	117%

<표 4>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손익 비교(2012, 2013년도 비교)

단위: 천원

2012년	2013년
41,127	△51,936

이런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안전사고 이후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취소 및 연기와관련이 깊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79곳의 평균 수련활동 취소 규모는 2014년도 예상매출 대비 69.7%에 달했다(참고: 표5).

18) 조사에 응한 청소년수련시설 당 규모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61,806㎡, 연면적 6,088㎡이며 숙박정원은 평균 603명이고 직원규모는 평균 26명, 연간예산규모는 약 10억 원이다.

<표 5> 청소년수련시설 매출액 및 계약취소액(2013, 2014년도 비교)

단위: 천원

2013년도 매출액	2014년도 예상매출액	2014년도 계약 취소액
1,166,657	861,657	600,564

이상의 현황과 실태만 갖고 보면,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들어설 공산이 크다. 예컨대,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안전에 대해 응당 준비해야 할 기본시설 및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금 당장 운영하지 않고 일정한 휴지기를 가진 후 추후 학교단체수련활동이 정상화되면 오히려 우수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시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손실 없이 다시 운영 전면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현재 청소년프로그램(학단이든 수학여행이든)을 운영하는 수범적인 청소년시설들은 더욱 더 취약해지며 운영전반에 어려움을 갖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시기에 맞춰 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꽃다운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여전히 상존의 위험에 놓여있을 수 있다. 또 그동안의 이러저러한 대응과 대책들은 결국 수범적인 시설은 위축시키고, - 이것이 어찌면 청소년활동의 위축과 맞닿는 지점이기도 하다 - 그렇지 않은 시설은 그대로 방기하는 미봉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와 예측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 그리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안전사고와 청소년활동의 위축이 뒤엉킨, 그래서 쉽게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 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규제위주의 안전지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소년활동은 자꾸만 위축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활동이란 개념의 근간마저 흔들리며 본원적인 안전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매듭풀기는,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안전사고를 다루는 관점과 입장이 '규제위주'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도감독 등의 규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위주의 일 방향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예기치 않게 청소년활동의 위축을 부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개정된 조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태안 해병대캠프 안전사고 이후 숙박형·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고 이후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숙박형·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동법 제2조 제7호와 제8호)를 비롯하여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제9조의2) 등 관련조문(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운영기준 등)들을 개정한 바 있다(2014.1.21.). 이런 일련의 조문 개정은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교육,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으로 연동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014.7.21.).

안전사고가 일어난 이후 그 원인과 잘못을 따져 필요한 법조문을 부분 혹은 전문개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이 자칫 부분적인 땀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필자의 의문은 이렇다. 무엇보다 이런 법조문을 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두었을까? 안전관련 규제 및 지도감독 강화 법조문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두면 의당 안전과 청소년활동이 서로 부딪치지 않을까? 차제에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가칭) 또는 청소년활동안전기준법(가칭)을 따로 제정할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청소년활동안전기준법을 제정하고, 그 법령에 관련된 여러 조문들을 갖추었다면 어땠을까? 예컨대 이 법령 안에서 안전기준을 갖춰야 할 시설의 범위와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국가와 사회가 보상 및 배상해야 할 범위를 정립하며, 시설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기준, 안전요원위촉, 안전조치, 예방활동을 위한 지원, 안전사고 조사 등을 갖추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나아가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공제회사업(요양 및 장애·간병·유족급여 등의 공제급여사업)을 구축해 작금의 국론분열을 미연에 예방하는 계기를 왜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청소년시설의 시설 기준, 운영기준,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문들이 있기에 지금의 사태를 덮기 위한 대응적(對症的) 방안으로 부분 및 전문개정으로 둔 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이는 근시안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어울리지 않는 법조문들을 모아 지금이라도 가칭 청소년활동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활동안전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근원적인 대안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학교안전사고및보상에관한법률(2014.5.14. 개정)로 인해 청소년활동은 학교교육에 언제나 예속될 수밖에 없다.¹⁹⁾ 청소년안전사고에 있어 학교와 청소년시설 그리고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기관·단체·시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가를 비롯해 모든 기관이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청소년 피해자가 나올수록 청소년활

1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은 지난 5월14일 부분개정을 했다. 법령개정의 이유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최근 청소년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둘 필요가 있어,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 보험가입 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 개정의 배경). 주요내용과 골자는 “첫째,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8조의2제1항 신설). 둘째,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함(제8조의2제2항 신설). 셋째,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함(제8조의2제3항 신설).” 이다.

동기반은 자꾸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이글의 요지다.²⁰⁾

memo

20) 시간과 지면관계 상 이 원고에서는 생략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할 - 여타의 논의주제들은 많다. 예컨대,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와 관련된 전달체계 구축과 정비도 중요하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활동진흥과 연계부서로 청소년안전팀을 만들었으나 현재 시도단위 청소년활동 관련 전달체계는 이런 공공 전달체계만이 아닌 민간단위 전달체계와 같이 꾸려져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국가안전처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단위의 연계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시도단위 청소년안전관련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국가안전처와 여성가족부/시도 및 시군구)과 민간부문의 연계협력과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민간단위 전달체계가 갖는 속성상 안전지도감독에 따른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또 하나는 안전사고 책임주체와 기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주제다.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피해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그 기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해 나갈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도 주요 이슈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주제들은 법과 제도의 정비로부터 시작된다.